

김경수 오늘 항소심 선고... 무죄뎌 與 대선판 지각변동

'드루킹 사건' 1심서 실형...檢 '킹크랩 시연' 주장 무너져 무죄 가능성 ↑ '친문 적자·경남권 정치인' 파급력 높아...친문 세력 지지여부 최대 관심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6일 열리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원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법적 족쇄를 벗어나게 되면 향후 여권 내 대권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구도에서 '친문 적자'인 김 지사가 가세할 경우 민주당 대권 구도가 크게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경남권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가장 강

력한 화력을 갖겠다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김 지사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게된다면 친문 세력의 결집과 함께 여권 내 새로운 대권 주자로 떠오를 가능성도 크다.

특히 당내 친문 세력이 김 지사 부활 이후 누구를 지지할지 여부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와 이 지사로 나뉘었던 친문의 지지층이 김 지사에게로 흘러 간다면 이 대표와 이 지사의 당내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김 지사의 당내 지지율이 치솟지 않더라도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양강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지녔다는 게 당내 평가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7월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받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와 일치락뒤락하면서 단숨에 양강 구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여권 내 대권 구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내년 중으로 예상되지만, 항소심 판단에 따라 법적인 족쇄에서 벗어나는 김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상당한 반사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에서는 재반 막바지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김 지사의 무죄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합상훈 김민기 하태환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

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으나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일당과 짜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지방선거 때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하면서 2017년 해 말 오사가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김경수 경남지사

전환의 시대, 민생제일 국회! 코로나19 국난극복·K뉴딜 미래전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회복 책임자"

강민석 靑 대변인 브리핑...거취 논란 불식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거취 논란에 휩싸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향후 경제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재신임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도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협의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

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하자 지난 3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즉시 이를 반려했다. 홍 부총리가 반려 후에도 국회에서 사의 표명 사실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후 홍 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입길에 오르내리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잡음을 진화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일 사표를 반려한 시점에 이미 논란을 정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면이 있고,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니 (문 대통령이)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홍 부총리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문 대통령도 홍 부총리에게 충분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부총리가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린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소병철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가 집행 상황 점검 필요"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법무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5일 법사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과거와 달리)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검찰의 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관한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배정과 집행 상황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검은예산'으로 불린다. 재정 당국의 특수활동비 축소 방침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예산이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소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농가 울 쌀 생산 감소분 국가가 보상해야"

잦은 태풍과 긴 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한 2020년 쌀 생산 감소분에 대해 국가가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쌀 생산량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쌀 예상 생산량은 360만톤으로 전년 370만톤 대비 3.0% 감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년수확량과 비교하면 9.5%가 감



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쌀 생산 농가들은 전년 대비 쌀 생산량이 30%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서 "통계청 쌀 생산량 통계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향후에는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민간인 수난구호 활동 피해보상·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5일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선의 노후화, 선원 고령화, 해양 레저객 등 해양사고 유발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사고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해양사고는 신속한 대응이 생명구조와 직결되지만, 해경 합정 1척당 서울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바다를 관리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반면 민간 구조 실적은 2016년 674척에서 2019년 914척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일 평균 2만 1000척 운항하는 민간선박이 구조에 참여할 경우 신속 대응이 가능해 국민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한화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신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 2개)	2,480	1,680
		디럭스형 무기명 (방 2개)	3,110	1,88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증식성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